



생각해봅시다



☞ 삶을 살아가는 5가지 지혜

1. **들을 것** - 대개 듣기보다 말을 하기를 더 좋아하지만,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중요하다. 상대방의 말을 들어 준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잊는다는 것이다. 급하게 대답하는 것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몰입할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그만큼 삶은 성숙해진다.
2. **권태로울 것** - 권태로움은 아무 것에도 애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마음으로 멀찌감치 느끼는 것이다. 우리를 가두어 놓는 온갖 것들을 느긋한 마음으로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며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고 만족스런 하품도 해 보자. 그러나 '권태'는 세상을 보다 성실하게 살기 위한 것이므로 언제나 절제되어야 함을 잊지 말자.
3. **기다릴 것** - 자유롭고 무한히 넓은 미래의 가능성이 자신에게 열려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자. 내가 꿈꾸는 것이 삶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. 조바심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면 미래는 곧 눈앞에 활짝 펼쳐질 것이다.
4. **마음의 고향을 간직할 것** -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퇴색한 추억들을 떠올려 보자. 개울에서 발가벗고 먹 감던 일, 낮설음에 눈물짓던 초등학교 입학식, 동무와 손잡고 걸던 먼지투성이 신작로, 지나간 흔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애착을 느끼게 된다.
5. **글을 쓸 것** - 마음속 진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금씩 마음의 소리를 글로 써 보자. 자신의 참 모습에 가까이 다가서려면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. 스스로를 꾸미고 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음속 깊은 곳의 진실에 귀 기울여 보자.

〈출처 : 좋은생각/베스트&베스트〉

공단 임직원 경조사

● 결혼을 축하합니다

- 태안지부 오형기 주임(2008. 3. 8)
- 목포지부 김재덕 부장 차녀(2008. 3. 16)

●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

- 부산지부 이철 부장 별세(2008. 3. 6)
- 완도지부 김동철 지부장 부친 별세(2008. 3. 12)
- 제주지부 한성철 지부장 모친 별세(2008. 3. 30)

알려드려요



알리는 말씀



선박안전기술공단 소식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단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발간하는 홍보지입니다. 공단소식 및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,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글을 게재코자 하오니 다양한 분야의 원고를 보내 주십시오.

연락처 → TEL 032-260-2226 / FAX 032-260-2275 / E-MAIL vicadpr@kst.or.kr